

순창군 내년도 국비 1550억원

전년대비 357억원 증가... 역대 최대 성과

순창군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1550억원 확보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국가예산확보 성과를 올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확정된 1550억원의 국가예산확보액은 전년대비 35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66개 사업 총사업비 1550억원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생물분야에서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미생물생산동) 구축 80억원 중 50억원과 장내유용미생물 은행(대변은행) 건립사업 300억원 중 200억원이 모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뤄 순창군의 미래 먹거리인 미생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섬진강 장관목 생태관광지 도로 개설 145억 중 2억5000만원,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조성사업 76억원 중 200억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관광순환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애로사

항이었던 팔덕 구룡 위협도로 개선 4억원, 팔덕지 하수관거 정비 5억원, 금과 방축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10억 6300만원도 끈질긴 노력 끝에 반영됨으로써 내년부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의 이같은 성과는 국가예산확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려온 황숙주 군수를 필두로 군 관계공무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내 상임위, 예결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전라북도와의 체계적인 공조유지가 가져온 값진 성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순창군 세종사무소 운영도 큰 몫을 했다.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5건의 사업이 신규 반영된 점은 그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군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타 기초자치단체와는 확연히 다르게 앞서가는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국가예산확보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 지난해 세종시에 속소와 사무실을 구입해 올해부터 상주인원 1명을 배치하고 정부부처의 정책동향 파악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군은 십수년 숙원사업인 방재터널 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있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순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순창군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을 쏟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면서 향후 논리와 명분을 심도있게 개발해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도 안겨 왔다.

황숙주 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국가예산확보 성과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점은 더욱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성과는 순창군과 전 군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 더욱 값지고, 군민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속도낸다

남원시, 정책연구 용역비 2억원 등 국회 예산심의 최종 반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용역비 2억원,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 10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최종 반영시켰다.

남원시는 지역 역점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용역비와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 사업비 반영을 위해 국회에 상주반을 가동시키며 전북도 예결소위원회로 활동 중인 안호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에 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하였고, 의원실에서 최종심의 단계까지 힘을 실어준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전라북도, 전북 정치권 등과 적극 협력한 것도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었다.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국토교통부 2016년, 2017년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선행연구 과제(급구배 추진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미완료 및 기술력에 대한 재검토 등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어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컸던 사업이다.

이번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용역비 반영으로 전기열차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차원의



남원시가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용역비 2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최종 반영시켰다. 사진은 3D그래픽으로 구현된 전기열차.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의 핵심사업인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확보가 시급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지리산 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유전자원 확보가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환주 시장은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과 화장품 산업은 남원시 핵심 성장동력사업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지역 매아리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연차별 시행계획 35개 사업

남원시는 7일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가졌다.

이번 심의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24명이 참석하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11개 분야 35개 사업을 심의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이다.

이번에 세워진 계획은 담당공무원과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수정, 검토한 결과를 담은 내용으로 복지재정이 급속하게 증대되어 가고, 복지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시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주체인 공공과 민간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심의를 통해 사회통합 지향적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전달체계 확립,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환주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로 삼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했음을 강조하고 소통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웃사랑 나눔실천 애향대상 시상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박상철·조완열씨 수상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재만)는 7일 임실문화원에서 임실군 애향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애향대상 시상식은 심 민 군수와 임실군의회 문영두 의장 등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향우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애향대상에는 신덕전자 박상철 대표와 임실군애향운동본부 지사면 조완열 지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덕전자 박상철 대표는 임실을 출신으로 애향장학금 1000만원 기

부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으며, 조완열 지회장은 10년간 다문화가정 쌀 지원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애향운동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민 군수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해온 애향대상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향 임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봉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이웃과 함께 하는 애향운동본부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친환경 주차장 건립으로 에너지절감 실천

임실군 내년 2월까지 준공 총 191대 공간 추가 확보

임실군청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주차장이 들어선다. 임실군은 군청사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를 갖춘 주차장을 내년 2월까지 준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군청사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고, 갓길 주차로 인한 주변 도로경관의 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군청 주차장 확대 공사를 추진 중이다.

군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은 군청 인근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900㎡ 규모로 총 19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군청 주차공간은 현재 253대에



서 총 459대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이번엔 건립될 주차장은 태양광 설비를 갖춘 친환경 주차장으로서, 에너지 절감정책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5억원을 확보, 주차장 옥상에 170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그린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한 친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주차장 옥상에 170KW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해마다 2천5백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며, 에너지절감 교부세를 해마다 20억씩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군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

순창군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차 구에게 매월 전·월세 주거비를 현금지원하고, 본인소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사업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2017년 기준 4인가구 19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4인가구 최대 12만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일부 완화된 제한조건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모두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은 올 11월까지 임차급여대상자 420여 가구에 총 4억7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수선급여로는 자가 가구 71동에 총 4억8천만원의 주택수선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순창=이영원 기자